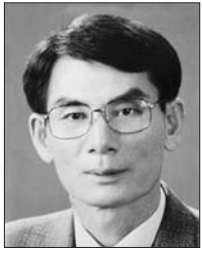


이정량의 古典探究



言論人(中國古典 研究家)

기회를 이용하여 책략을 구사한다(將機就計)

‘장기취계(將機就計)’에서 ‘장(將)’은 이용한다는 뜻이며, ‘기(機)’는 기회를 말한다. ‘계(計)’는 책략이다. 기회를 이용하여 상대에게 책략을 구사한다는 뜻이다.

정치투쟁은 말할 것도 없고 군사 투쟁에서는 지혜와 계략을 구사함에 기회를 단단히 잘 맞추어야 한다. 기회가 맞지 않으면 사태는 예상과 어긋날 가능성이 다분하다. 현명한 정치가치고 관건이 되는 시간, 장소, 말, 계획으로 긴요한 목표와 효과를 달성하는 데 능숙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흔히 계획을 실행에 옮길 좋은 기회는 슬그머니 찾아왔다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사라진다. 따라서 도중에 머뭇거리거나 방향해서는 안 된다.

소련의 군사 전문가 수보로프가 아들 아르카디에게 “승리는 늘 순간에 결정된다. 카이사르처럼 순간을 붙잡아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충고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고대 로마의 총독 카이사르는 원정과 기묘한 전략으로 이름난 인물이었다.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기본 요소는 극히 짧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었다.

기원전 48년 7월, 루비콘 강을 건너 로마로 진입하던 카이사르는 첫 전투에서 실패한 후 그리스 북부 테살리아의 파르살로스 지역으로 후퇴했다. 그의 뒤를 추격하던 폼페이우스는 수적으로 우세한 병력을 믿고 경사진 언덕에 주둔한 다음 유리한 지형을 이용해 싸움에 나서지 않았다. 카이사르는 하는 수 없이 이 지역에서 철수하여 다시 한 번 결전의 기회를 엿보기로 했다.

8월 9일, 카이사르의 군대는 철수준비를 했다. 이때 짝짝 않고 있던 폼페이우스의 군대가 진영에서 나왔다. 카이

사르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양옆에서 폼페이우스를 공격했다. 폼페이우스는 대패하여 이집트로 달아났고, 카이사르는 드디어 로마에 입성하여 권력을 장악했다.

1800년 6월, 마렌고 전투에서 나폴레옹 군을 격파한 오스트리아 군의 군기는 해이해져 있었다. 게다가 미하일 폰 멜라스 총독이 전투지를 잠시 떠나면서 군대를 참모장에게 맡기자 오스트리아군의 지휘 계통은 순식간에 흩어졌다. 나폴레옹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후원군을 얻어 즉각 조직적인 반격에 나서 단숨에 패배를 승리로 역전시켰다.

시기가 적절하면 평범한 전술이나 책략으로도 신동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시기가 적당치 않으면 제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해도 벽에 부딪힌다. ‘장기취계’는 계략 활용의 비결이자 기본 원칙이다.

독자 기고

화재경보기 설치하여 생명보호 재산피해 감소 실천해야

가족 분화와 연령층의 고령화는 노인 요양시설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요양시설은 소방 관에서 멀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 화재 시 소방대가 도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무엇보다 초기 소화와 파난이 중요하다.

소방시설은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등 최소한의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등이 설치되고, 화재 시 소방대상물 관계자의 초기 대응으로 화재를 신속히 진압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노인 관련 시설 등 소방 대상물은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시설에는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기술 자격자로 하여금 정기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정 소방대상물 건물주는 소방특별조사 시 소방시설 고장·방치에 따른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소극적이다.

소방시설은 화재가 나지 않는 한 불필요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으나 지난 경북 포항 요양원 화재나 전남 장성 노인요양원 화재에서 보듯이 화재 후 막대한 인명피해에 따른 법적, 경제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당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으로 초기소화 및 신속한 인명 대피로 인한 이득을 감안하면 점검 비용은 전기·가스비용처럼 당연히 지불해야 될 비용이다.

그뿐 아니라 최근에는 건물 인수 시 소방시설 등의 정상 작동 여부가 논란이 돼 비용 지불 문제로 다투는 등 건물의 가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단계까지 이르고 있는데, 안전에 대한 비용 지출은 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지출보다 상대적으로

로 적어 경제적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나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고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위해 기본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면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안전불감증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이란 공짜가 아니다. 화재를 겪어본 사람은 그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으려고 한다. 소방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않아 큰 인적·물적 피해를 봤다고 할 때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의 정상 가동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각 차량이나 가정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배상식 무안소방서 진압팀장

독자 기고

소방출동로는 생명로'

‘소방출동로는 생명로’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화재 등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소방출동로 확보는 생명과 직결된다는 뜻이다.

소방서에서는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과 홍보를 하고 있지만, 운전자들의 양보의식 부족과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재의 패턴이나 다양한 화재 사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화재 발생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초기 진화에 가장 효과적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응급환자 발생 시에도 현장에서 4~6분 이내에 초기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소생률을 높일 수 있

다. 현재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200만 대로 세계 15번째로 많다. 이는 인구 2.4명 당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수치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자동차 수에 비해 우리 국민들의 소방차 길 터주기에 대한 양보의식이 많이 부족한 편이다.

요즘 뉴스에도 좁은 주택단지 불법 주·정차나 소방차량에 양보를 하지 않는 암묵운전자들로 인해 소방차의 현장 도착 시간이 지연되면서 더 큰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도도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보도를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무관심한 사람들의 태도에 오늘도 한 생명

꺼져가고, 몇 년을 일궈온 재산이 한 순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내 이웃을 살리는 기적,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의 차량이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 있을 시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한다. 일반 통행로에 있을 시에도 양보하는 방법은 같다.

둘째, 편도 1차선 도로에 있을 시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하거나 또는 일시정지 한다.

셋째, 편도 2차선 도로에 있을 시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을 한다.

넷째,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2차선으로 진행하며 일반차량은 1차선 및 3차선(좌·우)로 양보운전을 한

다.

소방차량의 현장 도착 시간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나와 가족, 이웃 등 국민 스스로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인식하고 소방차량 출동 시 양보나 불법 주·정차 근절로 출동로 확보에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선진 시민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위에서 알아본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들은 우리 모두에게 생활화된 습관이 되어야 하며 소방차량에게 양보하는 것은 누군가의 선택이 아닌 내 자신의 행복 그리고 내 이웃의 안전을 위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의무감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소방차량 양보를 통해 내 이웃에게 영웅이 되고 성숙한 시민의식의 본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진민호 화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社說

투기심리 꺾으려면 공급대책 가시화 속도 내야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초강력 재건축 규제와 다주택자 중과세, 대출 규제 등 투기수요 억제 중심 정책에 서 벗어나 공급확대를 병행하는 쪽으로 당·정·청의 입장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앞장서 물꼬를 텄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호응하면서 투기 수요 억제와 공급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정책이 여권에서 공감을 얻어가고 있다. 2022년까지 주택공급 물량은 충분하며 집값이 뛰는 것은 투기수요 때문이라면 국토교통부도 어쩔 수 없이 이런 흐름에 합류할 것 같다.

1주택자가 환경이 더 좋은 집으로 거처를 옮겨가기 위해서 집을 사는 실수요자에게는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집값 급등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리고 집을 사려는 투기수요는 강력히 억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8·2 대책 등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강력한 투기수요 억제에 집중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대책의 근거에는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는 진단이 깔린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여러 투기수요 억제 정책에 집값이 꺾이지 않자 결국 공급 쪽으로도 눈을 돌린 것이다.

정부 중부세 개편안은 이미 국회에 넘어가 있다. 중부세를 정부 개편안보다 더 높이려면 국회가 합의해야 한다. 내년 예산심의와 100일 입법전쟁에 들어간 국회에서 이를 논의해 처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를 기다리기보다는 공급확대 방안을 신속히 내놓는 것이 우선이다. 이미 발표한 44곳의 공공택지 외의 추가 택지 공급은 당장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 예정택지 중 아직 택지 지구지정이 안 된 곳에 대해서라도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국민에게 내놓아야 한다. 공급확대 메시지가 시장에 전달될 마당에 대책 발표를 늦출 이유가 없다. 미적거릴수록 투기심리로 커지고 대책 비용도 그만큼 늘어난다. 투기심리를 잠재우는 데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는 투기수요를 부추길 수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부동산 가격이 마냥가자. 뛰는 집값을 잡으려면 수요를 줄이거나 공급을 늘리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 무주택자가 집을 사거나

전남도민일보 www.jndomin.kr 6124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소석빌딩 5층

회장 김경 대표전화 (062)227-0000 FAX (062)227-0084
발행·편집인 전광선 광고 (062)227-0083 구독료 월 10,000원
사장 이문수 등록번호 광주, 가25(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편집국장 조광태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남도민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면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마음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2580@jndomin.kr 전화 (062) 227-0000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읽는 바른신문

전남도민일보
지역기자안내

지역	직급	성명	연락처	지역	직급	성명	연락처
광산	부장	고훈석	010-9992-8212	무안	차장	박정오	010-5189-5639
동구	국장대우	서기만	010-4602-0708	무안(남악)	차장	김수형	010-3648-0281
북구	부장	김정관	010-9464-2555	영광	차장	김 진	010-9221-0000
목포	국장대우	박성태	010-3602-5869	동부권	동부권취재본부장	오승택	010-2080-6002
신안	국장대우	박성태	010-3602-5869	여수			
나주1	국장대우	김동철	010-3604-2611	순천			
나주2	부장	김운우	010-8835-0299	광양			
담양	국장대우	강종연	010-6297-7599	서부권	서부권취재본부장	윤규진	010-2001-8078
곡성	국장대우	심섭섭	010-3608-2634	고흥			
구례	국장대우	심건식	010-4624-0005	함평			
보성	국장대우	김용욱	010-3602-8103	장성	부장	정운섭	010-3640-6323
보성(별교)	부장	박주홍	010-7135-1518	남부권	남부권취재본부장	조광태	010-9621-0880
화순	차장	남호경	010-3624-6785	해남		조광태	010-9621-0880
장흥	국장대우	김정근	010-3601-3517	진도		조광태	010-9621-0880
강진	차장	전원빈	010-5470-4550	완도	국장대우	유대성	010-5007-5983
영암	국장대우	김희선	010-3631-1617	중부권	중부권취재본부장		